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에 듣는다

“민주주의 힘은 다양성과 조화… 대한민국, 달라져야 합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혹…3%에 국가 무너지지 않아”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성탄 메시지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분들이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인 김희중(67) 히지노 대주교는 23일 광주대교구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주교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 대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대한민국)가 그렇게 허약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3%도 되지 않는 사람들, 설령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 기관의 판결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이런 점에서 야당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주교는 지난 10월 말 한국 천주교 내 최고 상위 상설기구인 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취임 직후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를 강조했다.

김 대주교는 앞으로 주교회의를 어떻게 이끌겠느냐는 질문에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소임이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남겼다. 세월호 유족을 일일이 끌어안는 모습 등 자신을 낮추는 파격적인 교황의 행보는 대한민국 사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다.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정작 국민은 뒷전에 물러나 있습니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일이 일어나 해결하려 하면 엉뚱한 일이 또 터집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만 산적해 있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라는 말처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매일 잊혀지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건전한 언론이라면 미완의 것들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논의됐다. 그동안 가톨릭은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보수적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성소수자, 이혼자 그 자체를 찬성하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인간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라는 말에는 기존의 가치를 함부로 흔들지 않겠다는 신중함이 배어 있습니다. 변화에는 쇄신과 개혁, 혁명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체제를 먼저 흔들지 않고 의식부터 변화를 꾀하는 쇄신을 주로 추구해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살아 있는 전통이었기에 시대의 필요에 그때그때 응할 수 있었어요. 결국, 살아있지 못한 전통은 박물관의 골동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 대주교는 이날 성탄 메시지도 전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넋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이사 61, 1~3)는 말씀이 세상에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 탄생의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광주대교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를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내년부터는 ‘본당의 해’로 선포하고 가치관과 표현방식이 다른 세대별 통합에 힘쓸 예정이다.

“안정된 가정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공동체로 만들 생각입니다. 새해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전력 IT 전문기업인 한전KDN 신사옥 입주기념식이 23일 오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열린 한전KDN 신사옥 입주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도지사와 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환익 한전사장, 임수경 한전KDN 사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최외근 한전KPS 사장,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입주를 알리는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한전KDN, 빛가람도시 신사옥 입주

새해 시립미술관 관람료 폐지

광주시는 23일 “새해부터 새로운 자체 시책으로 시립미술관 관람료(500원)를 폐지하고,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 중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에 대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사부 인건비도 지원한다. 시는 또 신규로 우수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설립을 지원하고,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도 보급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송성각씨

문화체육관광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송성각(56)씨를 23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송 원장은 국민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제일기획에 재직하며 제작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이후 도너츠미디어와 머큐리포스트 대표이사를 지냈다.

송 원장은 “콘텐츠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한국 콘텐츠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메이저가 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비엔날레 기금마련 역할 기대

4개 정부서 요직 지내…정부와 거리감 줄이고 재단 개혁 적임

전윤철 이사장 선임 배경

감사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전윤철(75)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이 광주비엔날레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광주비엔날레는 20년 역사 속에 4번째 민간 이사장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2007년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으로 한갑수 이사장이 사퇴하고, 광주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체제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전 이사장이 선임된 배경에는 정동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취임 초기부터 ‘재단 개혁’과 함께 이사장 후보군 선정에 힘을 쏟았다.

정 대표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닮으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논란으로 생긴 현 정부와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인사 선정에 공을 들였다. 그런 점에서 ‘직업이 장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4개 정부에서 7차례나 차관급 이상 정무직을 지낸 전 이사장이 적임자라는 것이 정 대표이사의 판단이다.

재단은 전 이사장이 43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이고, 기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차례 이사장 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이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에서만 살아온 사람이고,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경험이 부족해 어깨가 무겁다”며 “광주비엔날레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쪽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43년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미술제나 예술 분야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제품이 결합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듯이 기업의 협조가 결국은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를 국가적 어젠다로 키워, 국가 차원의 미술대전이 되어야 세계와 호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십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